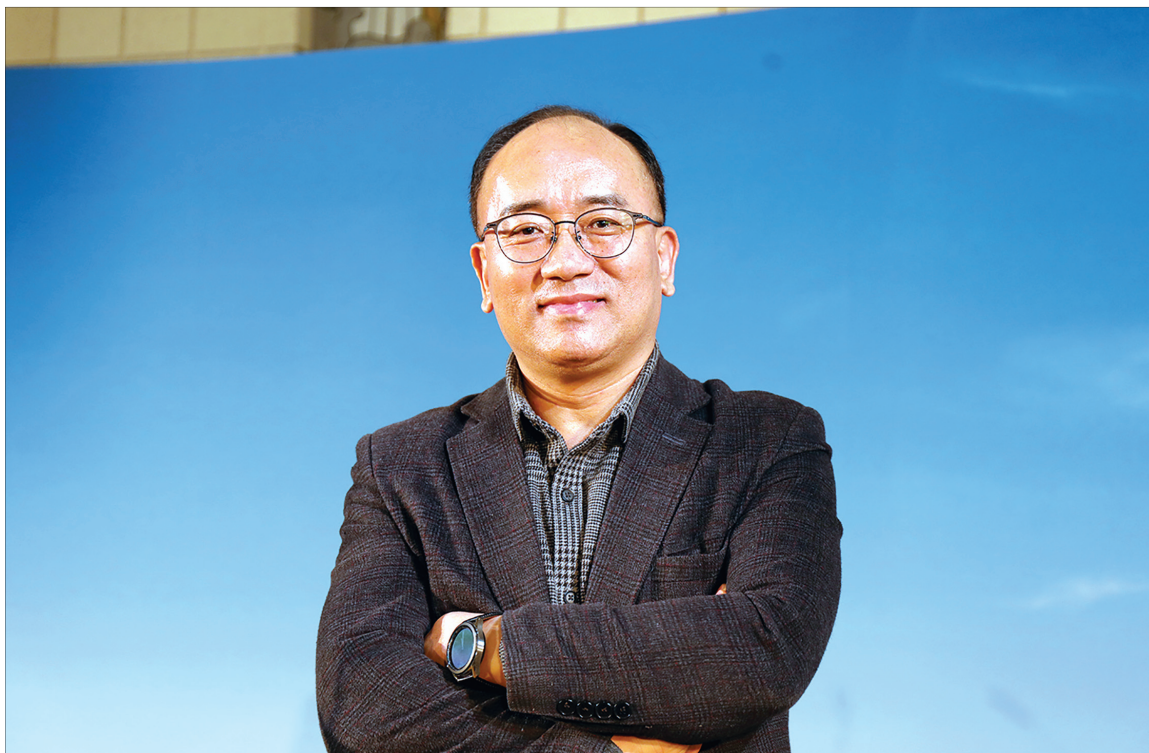


라스베가스 교회들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자훈련

미주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미주 각 지역에서 성실히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한인 목회자들의 고군분투기를 기록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인밀집 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열정을 쏟고 있는 목회자들을 우선적으로 만나 보도한다. 네번째 순서로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남덕종 목사와의 인터뷰를 신는다.

라스베가스의 한인들은 대부분 타주에서의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이다. 미국 이민에 바로 유입되는 경로가 아니다 보니 타주에서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한인들도 많다. 힘든 이민생활 중에 마음이 거칠어져 있기도 하고 기존의 한인들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있다.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남덕종 목사는 2013년부터 필그림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교회는 지난해 10주년을 의미있게 보내고, 올해 11년차를 맞아 힘찬 사역을 펼치고 있다. 필그림교회는 한국식 제자훈련을 라스베가스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교회이기도 하다. 한국과 전혀 다른 목회 토양에서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을 키워내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담임 남덕종 목사 ©기독일보

는 교회가 되기까지 남 목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교회를 개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첫 개척은 저에게 여러모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담임을 크게 존중해주는 문화도 아니었고 오히려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주로 섬김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목회자는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처음 온 것은 2007년이다. 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첫 개척목회의 시작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북미주개척장로교회(CRC) 소속의 한 교회와 합병했고, 이후 필그림교회 담임으로 현재까지 교회를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다. 교회는 11년이 됐지만 남 목사로서는 라스베가스에서 2007년 교회를 개척한 이후 줄곧 한 교회에서 17년째 목

회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개척교회만 맡아 사역했던 남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목회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 10년간 목회를 했지만 이민교회는 마음 밭이 많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목회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을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처들을 잘 돌보고 보듬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성이 돈독해졌고 제자훈련을 그 바탕 위에 접목했기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 목사가 라스베가스를 오게 된 배경은 다소 독특하다. 친구 목사의 아프리카 선교를 돕기 위해 가족들을 아프리카로 가게 했는데,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돕던 사역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도 문제였지만 당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두 딸들은 한국으로 다시 와서 다닐 학교가 없었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미국행을 결정했다. → 8면에서 계속



2024년 5월 1일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에 대한 금지 규정이 폐지되자, 카렌 올리베토(오른쪽)와 아내인 로빈 리든어(가운데)가 대의원들과 함께 포옹하고 있다. ©UM News

UMC 총회, 동성애자 목사 안수 결국 허용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결국 폐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달 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진행 중인 UMC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토론 없이 최종 투표 결과 692 대 51로, 교단 장정에서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4년부터 UMC 교

단 장정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자의 목사 안수를 금지해 왔지만, 교단 내 많은 진보 주의자들은 이 명령을 공개적으로 시행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투표 직후, 총회 장소에서 대의원들과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 가운데, 은퇴한 주교인 호프 모건 워드(Hope Morgan Ward) 감독이 대표로 기도했다. 그는 오랫동안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연합감리교뉴스(UM News)에 따르면, 워드 감독은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이날을 주님을 섬기는데 바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UMC는 교단 장정의 다양한 규칙을 변경할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다.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로프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8주년, 18명의 직분자 세위



새생명 오아시스교회가 4월 27일(주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임직 및 교육관 헌당 예배를 드렸다. ©새생명 오아시스교회

새생명오아시스교회(김일형 목사)가 창립 18주년 기념 임직 및 교육관 헌당예배를 4월 28일 오후 3시에 드렸다. 목사(캄보디아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와 세

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러분에게 가자고 하신다. 장로의 길, 권사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겠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기동으로 세워진 임직자들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18년 동안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사역해 오고 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길이 막힐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답사에서 김 풀 장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기를 원한다. 낮은 자리에서

교회와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하며 나가는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 앞에 산산히 깨어지며, 충성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결단한다”고 했다.

이날 18주년 기념예배에서는 뜻하지 않게 18명의 시무장로, 장로, 권사,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가 임직을 받아 은혜를 더했다고 김일형 목사는 밝혔다.

예배에서 사회에 김일형 목사, 특송에 2세 사역부, 광고에 서영완 장로, 축도에 배진 목사(청년부 담당)가 각각 담당했다.

새생명오아시스교회는 2006년에 새생명선교교회와 오아시스한인교회가 연합함으로 시작했다.

토마스 멩 기자

윤임상 교수, 목사 임직 헌신예배 드려



남가주 지역 교계에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한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음악 학과장)가 목사 임직 헌신예배를 28일 오후 4시 한길교회에서 드린 후 라크마 챔버싱어즈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이성진 목사) 음악과 윤임상 교수가 최근 시카고에서 Evangelical Church Alliance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가운데 목사 임직 헌신예배를 4월 28일 오후 4시에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드렸다.

설교를 한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전임 총장)는 “무슨 일을 하든지 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흐뭇하게 미소를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상 축사에서 임성진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회 음악과 예배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영상 권면에서 노진준 목사(PCM 공동대표)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로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목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는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윤 목사님을 부른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일로 부르셨음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남중성 목사(월드미션대 신약학 교수)는 “윤 목사님과 같은 해에 미국에 건너와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삼행시를 지어봤다. ‘윤’기가 흐르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임’시 사는 이 세상에서, ‘상’처와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사도가 되소서”라고 권면했다.

윤임상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2020년 가을학기부터 학교에서 채플 사역을 하며 매주 한번씩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두번째는 교회 음악과 관련된 글을 써오면서 오늘날 교회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면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 정신을 닦겠다.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들을 발굴하고, 교회와 학교, 문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지속적으로 외칠 것이다. 지금보다 더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자들을 기르고 그들이 바른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목회자의 직분을 귀하게 받겠다”고 답했다.

이날 고광선 목사가 사회를, 김영남 장로(한길교회 당회 서기)가 대표기도를, 라크마 챔버싱어즈가 특송을, 오위영 목사가 헌신의 찬양을, 윤임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토런스 조은교회 선교기금 골프대회



토런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4월 27일 로스버디스 골프코스에서 교회 선교부(부장 신주희 안수집사) 주관으로 열렸다. 총 108명이 참가한 이날 골프 대회에서는 진상식 씨가 메달리스트, 남자 챔피언은 폴 김, 여자 챔피언은 전미향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골프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선교 기금은 2024년 토런스조은교회가 계획 중인 해외 단기 선교지 10곳, 국내 단기 선교지 3곳 등 총 13번의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torrancegcc.org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GIFT 상담치유 연구원(원장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은 5월 11일(토)과 18일(토) 오전 8:30 - 오후 6:00까지 세리토스 선교교회(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에서 <12차 새사람 전인적 힐링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인적 리더십과 성장과 치유에 관심 있는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250이다. 모든 수익금은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살렘’ 사역에 사용된다.

전달훈 의학박사와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강사로 서, 내면의 탐색과 변화, 치유로 다른사람을 더 잘 섬기는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강의한다.

주최측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뼈뼉어린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447-2793 (이설주 목사)/giftnewcreation@gmail.com 등록: https://forms.gle/Kys-gqU7pjntTSuZT7 등록 마감일은 5월 8일이며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Happy Mother's Day

뉴욕제과

New York Bakery

역사와 전통의 뉴욕제과!

T.(213)385-3125
3120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EM사역, 다인종 회중 사역으로 변화될 것 70.9%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2024 미주 목회 인사이드 열려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의식조사 결과 향후 10년 후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가운데 이유로, 이민자/유학생 감소 25.5%,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함 21.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19.7%, 세속화 17.9%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향후 EM 사역은 한인 2 세 중심이 아닌 아시아인이 주류가 된 다인종 회중 중심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70.9%)을 나타냈다.

CTS America(대표 김덕규)와 지앤컴리서치가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 사역자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 미주 목회 인사이드를 25일 오전 10시 30분에 CTS America에서 개최했다.

'한인교회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뉴욕과 LA 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뉴욕후리성제일교회와 MICA,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가 공동 주최했으며 미주 전역의 68개 교회 1169명의 교인과 83명의 EM 사역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미주 목회 인사이드는 통계와 수치를 통해 한인교회의 전망에



4월 25일, CTS America(대표 김덕규)와 지앤컴리서치가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 사역자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2024 미주 목회 인사이드를 개최했다. 이날 주강사로 통계 결과를 발표한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기독일보

성도들의 의식 조사에서 한인교회 쇠퇴 전망해. 요인으로 이민자, 유학생 감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신앙 약화, 세속화 꼽아, 교회 및 목회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희망해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EM 사역 전략 수립 및 KM 사역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은 93%가 현 장예배에 참석해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예배를 선호했고 85.4%가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교회 및 목회자에 대한 의견으로는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 활동에 관한 항목에서는 85.7%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교제, 친교, 말씀, 사역,

봉사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그룹 활동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인교회의 미래에 관한 항목에서는 자신의 소속교회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인교회 전체교회로는 쇠퇴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자신의 교회와 전체

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나타냈다. EM 사역자들의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EM 사역자들은 교회가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낀다는 질문에는 73%가 배려를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KM 사역을 위한 보조 역할로 느끼거나 헌신을 강요당한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60%에 달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45%만 가능하다고 답변해 절반 이상의 EM 사역자들이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임목사와의 소통과 교류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

소속 교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EM 사역자 88%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지만 만족감은 이보다 낮은 72%로 응답했다.

한인교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세대간 이해부족과 문화적 차이가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EM 사역자 3명 중 1명의 비율로 기회가 된다면 미국교회 혹은 다민족교회에서 사역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10년 후 EM 사역의 미래를 묻는 항목에서는 65.1%가 성장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 35%에 그친 한인교회 성도들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토마스 맹 기자

마지막 주 토요일은 노방전도의 날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전도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노방전도를 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맥아더 파크에서 전도했다.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 등 여러 언어로 제작된 전도지를 대상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들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지닌 젊은이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매월 전도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방전도에 동참할 길 원하는 분들은 ANC온누리 교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818-834-7000 ©기독일보

원하트미니스트리와 마커스워십 연합 집회

원하트미니스트리(Oneheart Ministry, 대표 피터 박 목사)가 올해 10 주년을 맞아, 오는 5월 31일부터 3일간 한국 마커스워십과 함께 대규모 찬양 집회를 연다. 'JesUS/예수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지난 10년간 원하트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이다.

집회는 5월 31일(금)에는 OC에 위치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에, 6월 1일(토)에는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저녁 6시에, 6월 2일(주일)에는 노스리지(Northridge)에 위치한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저녁 6시에

열린다. 두 단체 연합 집회의 예배 인도에는 마커스워십의 심중호 인도가 하며, 마커스워십의 보컬인 박은미 자매와 뮤직 디렉터이자 메인컨반 연주자인 권미성 자매도 게스트로 참여한다.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이요한 목사와 원하트미니스트리의 피터 박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예배 후원티켓은 15 달러이며 www.oneheart-usa.com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원하트미니스트리

티켓 판매처는 복음방송, 기독일보, 남가주사랑의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에브리데이교회이다.

문의는 213-347-5080 혹은 lynnkimoneheart@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UMC 총회...>에 이어서 여기에는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 금지, 목회자의 동성결혼식 주례 금지, 교회 단체의 성소수자(LGBT) 옹호 단체 자금 지원 금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극명하

게 갈렸다. 수년 동안 UMC 총회에서 장정을 변경하려는 신학적 진보주의자들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MC 내의 진보 진영은 규정과 상관없이, 동성애자 목

회 후보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하거나 감독으로 임명했다. 일례로, 카렌 올리벤토(Karen Oliveto) 목사는 동성 결혼을 한 상태로 2016년 UMC 서부연회인 마운틴 스카이어리어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에 교단 최고 법원인 UMC 사법위원회는 올리벤토의 선출을 무효로 선언했지만, 그는 현재까지 감독직을 유지 중이다.

2019년 UMC 특별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장정에 2553항을 추가

하기로 승인했다. 이 조항은 동성애 논쟁으로 UMC를 탈퇴하려는 교회를 위한 절차로, 2023년 말까지 7500개 이상의 보수 교회들이 교단을 떠났다.

김유진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준민 목사, 만나교회 설교서, “깊이를 상실한 시대의 슬픔”

한국 사회에 용서가 없어지고, 심판 하자는 메시지만 가득. 정의 중독 상태. 고멜을 품는 호세아,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랑이 없어졌다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강준민 목사(새생명 비전교회)는 만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manna.or.kr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강준민 목사(새생명 비전교회)는 만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6-7의 말씀을 전했다.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메시지는, “영성에 대해 오래 연구하며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린 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닮는 것임을 깨달았다”로 이어졌다.

그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야 되는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수님 뿌리 깊은 영성과 대비되는, 즉흥적 흥미만을 쫓는, ‘깊이를 상실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빠르고 쇼츠를 보면 순식간이 지나가는데 재미는 있지만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다. 마르바 던(Marva J. Dawn)이라는 신학자가 ‘깊이를 상실한 시대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재능이 있고 속도를 낼 줄 알고 빠른 사람보다는 깊이가 있는 사람 원한다. 이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 장애인들이 아니다.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너무 빠른 사람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 역시, 그들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잃고 율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 나와 보니, 많은 교회들이 율법화 되고 사랑이 사라졌다. 한국 사회에 용서가 없어졌다. 온 나라에 심판하자는 메시지가 가득하다. 한국 사회가 지금 정의 중독에 빠져 있다. ‘나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것. 그래서 정죄가 많고 용서가 없다”고 우려했다.

“율법은 정죄한다. 검사처럼 죄를 고발한다. 복음은 사랑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 변호해 주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율법화돼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을 상실해 버렸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건 법이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

준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장녀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고멜이 도망가면 돈을 주고 또 사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랑이 없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심판과 저주와 정제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용서하신 사랑, 잊어버리는 사랑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여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신약에서는 다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용서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예배에 관해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이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버림받았다. 가인도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고 사울 왕도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전민족의 죄를 대신 속죄는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신다. 왜 그런 줄 아는가? 그 날 이후로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의 죄도 정지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사람의 죄도 아론 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가장 큰 죄는 간음죄도 심지어는 살인죄도 아니다. 가장 큰 죄는 영적 교만의 죄고 예배를 잘못 드린 죄인데 아론이 금송아

지를 만들어서 자기도 잘못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7년 전 그의 아내에게 찾아온 폐암 선고와 이민목회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무는 어둠을 통과하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생이 어렵고 공고할 때 뿌리를 내린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 내리는 곳은 어두운 곳이다.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키우셨다.요셉을 감옥에서, 다윗을 기가 막힐 수렁과 아달람 굴, 광야에서 키우셨다.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제 생애에도 어둠을 많이 겪었다. 영적 침체 들어가고 갑자기 공황장애 오고 깊은 우울증, 의욕 상실, 의심이 들어오는데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 내 병을 의사가 못 고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렇지만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설교해야 했다. 그 어두운 때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그 때 어둠 속에서 생명을 키우시고 흑암 중에 부활을 감취 두시는 걸 깨달았다.”

“7년 전에 제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고 왼쪽 폐를 전부 절단했다. 밤이 되면 아내가 약을 먹기 위해 일어나 30분 동안 찬양했다. 그 밤에 부른 노래를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 많이 울고 찬양하고 그 어두운 밤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삶이 철학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때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라.” 주디 한 기자

한미연합회,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4 전국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전국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는 1980년에 한인 1.5세대와 2세의 리더십 함양과 한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창설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5년만에 다시 열린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각 분야의 한인 리더들을 만나 교류하고 진로에 대한 멘토링도 받게 되며, 리더십 역량을 배우게 된

다. 또한, 한인 공동체가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참가 대상은 현재 대학 재학생과 올 가을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웹사이트(<https://kacla.org/national-college-leadership-conference-nclc>)를 통해 5월 20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 연락받게 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한다.

참가비는 숙식을 포함하여 \$500이고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참가비의 상

담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된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Eunice Song) 대표는 “이번 행사는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온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해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은 물론 전국에서 온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면서 교류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 NCLC 문의: 이메일 programs@kacla.org, 전화 (213) 365-5999

2024 NATIONAL COLLEGE LEADERSHIP CONFERENCE

NO APPLICATION FEE
THE CONFERENCE COST IS \$500
ALL INCLUSIVE LODGING, MEALS,
TRANSPORTATION TO HOSTING SITE AND
ACTIVITIES.

JUNE 17-21, 2024

FINANCIAL ASSISTANCE IS AVAILABLE
CONTACT PROGRAMS@KACLA.ORG
APPLICATION DEADLINE:
MAY 20, 2024

PEPPERDINE UNIVERSITY
24255 PACIFIC COAST HWY.
MALIBU, CA 90263

한미연합회
KOREAN AMERICAN COALITION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무료 상담 **(213)210-3651**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Dlee@proverbs318law.com



가정의달, 5월 Special



VIP Signature

VIP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케어로 피부를 되살리세요!

VIP
시그니처 얼굴관리

10회
~~\$1,200~~ → **\$999**

림프마사지
+
택1)LED, LDM, Hydropeel

VIP
프리미엄 얼굴관리

10회
~~\$1,200~~ → **\$1,299**

림프 팔사 마사지
+
택2)O2toDerm, LDM, Hydropeel,
Cryocell, Hydrogen Care

VIP
여드름 얼굴관리

6회
~~\$1,200~~ → **\$999**

여드름 압출
+
택2)O2toDerm, LED, Hydropeel,
LDM, RF, Cryocell,
Hydrogen Care

VIP Body Care

다가오는 여름이 무섭지 않게~

인모드 슬림 바디 케어 관리

지방 관리 + 얼굴관리 3회

~~\$4,500~~ → **\$2,500 /10회**



Skin Booster

즉각적인 피부고민의
효과를 원한다면!

엑소솜
피부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3 treatments
~~\$2,400~~ → **\$1,500**

리쥘란
피부 탄력 회복이 고민이라면
3 treatments
~~\$1,800~~ → **\$1,200**

자가혈
빠른 피부재생을 원한다면
1 treatment
~~\$2,400~~ → **\$1,800**

쥬베룩
매끄러운 피부를 원한다면
1 treatment
~~\$600~~ → **\$400**

샤넬주사
칙칙한 피부색을 돌리고 싶다면
1 treatment
~~\$1,200~~ → **\$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지긋지긋한 피부고민은 이제 VIP 에서 해결하세요 | 예약 ONLY!



무료 상담 714-649-6586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C, Garden Grove, CA 92843

김경재 교수 칼럼

바벨탑과 오순절, 불통혼잡과 소통질서



김경재 교수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신학아카데미 자문위원

구약 신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50장은 크게 설화적 원역사(原歷史, 1장-11장)와 현실적 구원사(救援史, 12장-50장)로 구별한다. 원역사란 신화와 현실역사가 뒤섞여져 있고, 뿌연 안갯속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이성의 시계(視界)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인간사 세상만사의 원형적 설화들(archetypal saga)이다.

그에 비하여 아브라함 소명 받음(창12:1)으로부터 시작되는 현실적 구원사는 인간의 역사 이성 시계지평(視界地浬) 안에 들어오는 역사이다. 아브라함은 주전 약 1,800년 경(BC. 1880),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 고대 바벨론제국 시대 유랑하던 아람 사람 유목민 족장이었다(신26:5-9). 창세기 편찬 기록자는 원역사 설화의 마지막 막을 '바벨탑 설화'로 마감한다. 바벨탑 설화를 통하여 성경이 전하려는 근본 의도가 무엇일까?

탁월한 구약 성서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C. Westermann)의 지론에 의하면, 바벨탑 설화의 핵심 의도는 다음과 같은 충고라고 주석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계선 안에서만 자신의 인간성을 성취할 수 있다.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깨뜨리려는 충동과 교만은 개인과 집단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고 만다"(「창세기」 주석서, 134).

보다 힘세고 큰 것을 추구하려는 본능에 가까운 인간성의 충동은 니체 철학에서 '권력에로의 의지'(Will to Power)라고 표현되고,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쾌감원리에 따라 욕망을 충족하려는 무의식적 리비도 분출로서 나타난다. 종교심리학에서도 거대한 것을 숭배하는 타이타니즘(Tatanism)으로서 나타난다. 고대 피라미드 축조 이후 현대에도 100층 이상의 고층 건물 짓는 경쟁이 뉴욕시나 두바이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 총대를 가슴에 메고서 군함발 맞춰가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독일 나치군대나 북한 인민군 군대 행진, 수천 명 집단체조와 수령 지도자에게 광기 어린 열렬한 박수로 환호하는 정치적 우상숭배 열정은 모두 바벨탑 설화와 관계된 현상들이다.

바벨탑 설화 본문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城)과 대(臺)를 쌓아 대(臺)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여 집을 면하자"(창11:4)라고 집합적 인간이 서로 마음다짐 했다는 것이다. 바벨탑 축조건물은 자연석 채석장이 가까운 산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창11:2),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창11:3) 건축자료 제작 기술을 터득한 도시 문명형성단계임을 암시한다. 기술이 진보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려는 자기 절대화 충동이 강하게 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축조하려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축조방식처럼 맨 밑바닥부터 수직 방향으로 쌓아가는 거대한 건축공사가 되고, 거기에 일사불란한 명령 하달의 감독지휘체계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언어 통로만 작동하게 된다. 인간무리의 협동 관계 형태는 명령과 지시 하달에 복종하는 수직관계가 되고, 대화적 쌍방향의 수평관계일 수 없게 된다. 자발성과 개개인의 인격성이나 창의성이 묵살되고, 인간노동은 수단 도구로 전락된다. 점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는 건축물의 위엄(威嚴)과 노역자의 자기 존재 정체성을 일치시키고, 스스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위로를 삼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신의 형상'이 꽃피려면
바벨탑 설화를 겉으로 표현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질투심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집단 무리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는 인간 족속의 교만한 행태가 맘에 안들어 언어를 혼잡케 하고, 굳게 뭉쳐 집단행동을 하는 혈연적 인간관계 결속을 흐트러 버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바벨탑 축조하던 무리들이 의사소통이 안되고 분란이 일어나서 건축을 중단하고 흩어진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바벨탑 이야기는 '설화' 형태를 띤 인간 행위의 원형적(元型的) 심리 본성을 '여호와 신의 직접 개입' 형식이라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무리가 흩어진 이유는 외부에서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고 집단 무리 안에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인간이란 존재가 건축 기술을 발휘하는 기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영물, 인격체, 자유인, 우주존인데 그런 인간 본성의 핵심적 본질이 오랫동안 억압되고 훼손된 것에 있다. 초창기에는 일사불란한 집단행

신의 형상이 꽃 피려면
인간으로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며 서로 말하고 듣는 행위가 보장되며 쌍방향 주고받음이 일어나며 자발성과 기쁨이 동반되어야

동을 보이면서 능률성과 효능성을 나타내지만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소통은 불통이 되고 일꾼들은 윗사람 눈치만 보고, 조직체 안에 상호불신과 각자도생의 무자비한 현실이 드러난다. 자율성, 함께 일하는 신명나는 기쁨, 자기조직화 하는 창조적 역동성은 살아지고 거대한 '병영집단'처럼 되고 만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 형상'이 구체적으로 꽃피어나려면 4가지 필수 조건이 인간관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서로 인간으로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는 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는 진지하게 서로 말하고 듣는 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만 말하기를 독점하고, 다른 쪽에서는 듣기만 하거나 받아서 메모만 하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꽃필 수 없다. 셋째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또 받는 쌍방향 주고받음이 일어나야 한다. 시혜만 베푸는 임금님이나 구걸만 하면서 받기만 하는 거지에게 '하나님 형상'은 꽃피지 않는다. 마지막 넷째 조건은 이상의 일들이 자유로운 자발성과 기쁨이 동반되는 신명나는 것이라야 한다. 도덕적 책임성, 율법적 당위성, 직책상 마지못해 하는 시늉으로서는 안된다.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고, 소통이 안되고, 집단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 본성 실현 조건이 철저히 무시되거나 억압되었기 때

문이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언어소통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오순절 사건을 보도하는 사도행전 2장은 총 47절로 구성된 사도행전 제2장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각각의 중요성과 의미를 갈파한다. 첫째 단락은(행2:1-13) 오순절에 성령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은사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하는데 청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지방 언어들(방언들)로서 알아듣는 기이한 언어소통 사건이 일어난

상적 '언어발음 현상'을 말한다.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은 후자의 의미로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무렵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지방,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로 이해하게 되는 기이한 '언어소통 현상'에 놀라 어리둥절하고 '낯설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냐?'고 조롱했다.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제2장의 오순절 사건을 전하는 근본 메시지가 들어있다. 부패해가고 변질되어 망해가는 바벨탑 이후 인류 문명 역사 속에, 새로운 생명소생 물결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다. 그것은 언어불통과 더 강해



Pieter Brueghel의 Tower of Babel. © wikipedia

이야기를 전한다. 둘째 단락은(행2:14-42) 이 세상을 향한 최초의 선교교를 베드로가 행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무리들이 발생하는 이야기이다. 셋째 단락은(행2:43-47)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류공동체로 결실을 맺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들의 '개벽'된 삶의 모습을 전한다. 재산과 소유의 양극화가 극복되고, 사감과 기쁨의 찬미가 되살아나고,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는 새로운 생명공동체가 역사 속에 출현하는 이야기이다.

오순절 사건 중에서 특히 '언어의 소통'에 관하여 주목하기로 한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혹은 '방언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글자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반적 언어학에서 말하는 지방어, 지역 언어, 쉽게 말해서 외국어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들려나오는 비정

지고 높아지려는 상향적 타이타니즘 숭배 신앙 방향이 아니다. 언어소통과 서로 나눔과 작은 것을 아낌없이 줄 줄 아는 삶의 질서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일은, 성령강림으로 인해 다양한 방언들(언어들)을 폐기하고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Unity in Diversity)가 이루어지는 삶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대화 형식의 외형적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맘과 맘이 통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구촌이나 한국 사회의 현상은 현재 바벨탑 붕괴 현상을 보인다. 국가와 국가, 정부와 국민, 정당과 정당, 사회 계층과 계층, 세대 차이 간에 소통이 안되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오순절 성령 바람이 지구촌, 한국 사회, 교계에 불어와야 한다. 다시 환상을 보고 희망의 꿈을 꾸는 '개벽'이 이뤄져야 생존 가능한 인류공동체로서 재탄생할 것이다. 아니면 언어혼란과 불통으로 멸망이 있을 뿐이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멜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멜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열심 보다는 방향을, 속도 보다는 목적을 우선시 하는 목회

→1면 기사 <“라스베가스 교회 들...>에 이어서

처음 남 목사의 미국에서의 목회는 라스베가스의 여느 다른 한인교회들보다는 사정이 나아 보였다.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상가교회로 옮겨간 후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 성전으로 이전을 했다. 교회를 꾸준히 찾는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고, 예배팀도 특별히 잘 훈련이 되어서 당시 지역에서는 최고의 장비와 팀원을 갖춘 찬양팀이 꾸려졌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전적인 사역의 초점을 예배에 맞추던 시기였다. 또 성도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목형 목회를 하던 때였다.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후 뜻하지 않은 두번의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교회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 몇몇과 규합해서 나가는 일이 두 번이나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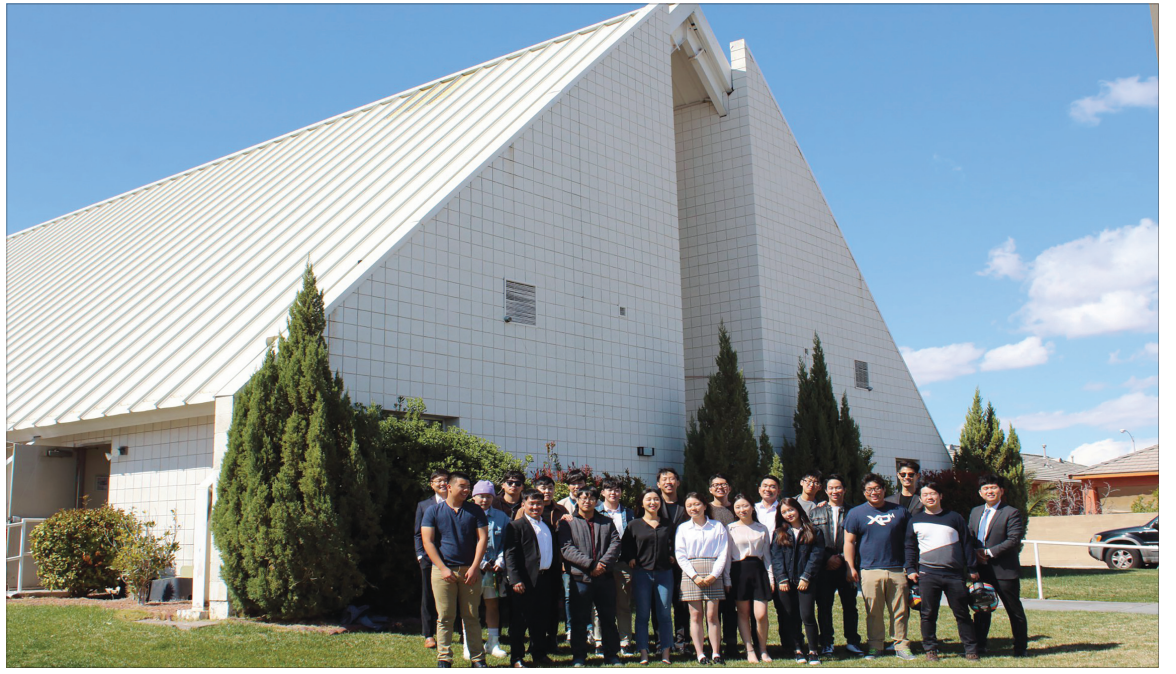
“예배도 은혜가 있었고 잘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것이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

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제자훈련이 도입된지 3년, 현재 필그림교회는 예배도 회복됐고 여기저기서 훈련의 결실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제자훈련 도입에 있어 시행착오도 몇 차례 있었다. 라스베가스 한인들이 너무 바쁘고 마음 받이 달라서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과 그래도 반드시 제자훈련을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럴수록 제자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남 목사의 생각은 오히려 확고해졌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현재 제자훈련은 필그림교회의 중심적 사역으로 자리잡았다.

“제자훈련이 자리잡기 전까지 어려움은 많았지만 저는 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제자훈련을 위해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성도들을 영적 리더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사역을 위임받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더욱 사역을 확장해 가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와 한인들간의 접촉점이 별로 없는 라스베가스에 복음이 더욱 잘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시작해, 상가교회로 옮겨가게 되고, 현재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리잡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남 목사는 “다 주님의 은



2020년 3월 15일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창립 7주년 주일 단체사진. ©pilgrimch.com

“교회 내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것이 선교라고 판단해 현재 7개 선교지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후원하면서 가까운 곳에는 단기선교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가까운 멕시코의 경우 물품을 직접 들고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 건축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임현수 목사와는 아마존 폐폐공동체 선교를 협력하게 됐다. 임 목사를 초청해 교회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마지막 사역지도 아마존이었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처음 찾아가는 곳이 아마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마존 선교를 위해 서로의 뜻을 모으게 됐다. 이외에도 필그림교회는 현재 선교사역으로 니카라과에는 선교도서관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고, 필리핀도 선교사를 통해 미션스쿨을 돕는

사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열심보다는 방향을, 속도보다는 목적을 우선시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장보다 본질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건강하면 성장은 덩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필그림교회의 성장관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목적과 방향은 ‘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만큼 지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라스베가스 복음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사역공동체로써 필그림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김대원 기자

목회의 새로운 동력 얻는 영성회복 기도회

기도를 통한 목회자 영성회복 영성회복기도회

김영길 목사 (6/17 2:00 PM)
 감사한인교회 주차장
 감사한인교회 기도원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의 여정 출발!!
 일정: 2024.06.17-06.19 (2박3일)
 대상: 현역 담임목사 선착순 20명
 참가비: 무료 (숙식제공)
 성경, 세련도구, 장구(솔리피캠프)

목회자 영성회복을 위한 영적 에너지 소진되었을 때 성도들을 이끌고 전진하기 어렵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kgbc.org

이민 기도회에는, 감사선교재단의 대표 김영길 원로목사가 감사로 나선다. 영적 힘과 깊은 기도를 위해 일상의 자리를 떠나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현역 담임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03년 그레이스한인교회(Grace Community Church)를 개척한 박신일 목사는 지난 18년 동안 밴쿠버에 여섯 개의 분립 교회와 한국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2023년 그레이스한인교회(Grace Community Church)를 개척한 박신일 목사는 지난 18년 동안 밴쿠버에 여섯 개의 분립 교회와 한국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 세미나

2024 목회 세미나
복음중심의 설교자

신청 마감은 5월 28일까지

박신일 목사 (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미주복음방송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공동주최로 6월 4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2024 목회세미나'가 개최된다. '복음중심의 설교자'를 주제로 6월 4일(화) 오전 10시부터 정오 12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진 박신일 목사(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강사로 나선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40명까지 참

석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5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kgbc.com)나 전화(714-484-1190)로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그레이스한인교회(Grace Community Church)를 개척한 박신일 목사는 지난 18년 동안 밴쿠버에 여섯 개의 분립 교회와 한국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이우호 담임목사 CRPC 포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지영환 담임목사 다운니제일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김중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주혜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UMC, 유라시아 연합교회 교단 탈퇴 승인



2024년 4월 25일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동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연회의 탈퇴를 허용하기로 투표하자 지역 회원들이 반응하고 있다. ©UM News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 대의원들이 동유럽에 본부를 둔 지역기구가 신학적 문제로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린 교회 전체 임업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672표, 반대 67표로 유라시아 성공회 지역(Eurasian Episcopal Area)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청원 2110호를 승인했다. 유라시아 성공회 지역의 에두아르드 케게이 주교는 "나는 연합감리교회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설명하며 교단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반면, 일부 대의원들은 UMC가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세계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입장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청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라시아 교회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청원은 총회 시작 전날인 22일에 열린 UMC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UM 뉴스에 따르면, 케게이 주교는 위원회에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떠나는 것과 같다"며 "저의 희망은 가능할 때마다 우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형제자매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총회의 이번 결정은 2025년 초 북유럽 및 유라시아 회의의 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MC는 동성 결혼

축복과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교단 규칙을 변경할지 두고 분열적인 논쟁을 벌여 왔다. UMC 장정은 현재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교단 장정을 장정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진보 진영의 UMC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장정을 따르거나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수 진영의 반발을 샀다. 2019년 특별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장정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투표했다. 이 조항은 동성애 논쟁으로 UMC를 떠나려는 교회에 대한 탈퇴 절차로서, 이는 2023년 말에 만료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600개의 교회가 이 조항에 따라 UMC를 탈퇴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2022년에 출범한 UMC의 보수 대안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했다. 2022년 동유럽 연합감리교회 소속인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연회(Bulgaria-Romania Provisional)는 만장일치로 교단을 떠나 GMC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3월, UMC 북유럽 및 유라시아 중앙회의(UMC Northern Europe and Eurasia Central Conference)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에서 찬성 40표, 반대 20표로 지역 기구들이 탈퇴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용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내 기독교 적대감 고조" ... 박해감시단체 경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의 제프 킹 회장. ©Persecution.org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제프 킹 회장이 미국과 서구에서 증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에 대해 경고했다. 킹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범 비 속의 개구리이며, 거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왔는지에 대해 너무 익숙해서 이 거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요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ICC는 최근 텍사스의 스테이시 바버(Staci Barber)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바버는 지난 3월 휴스턴 인근의 케이티 독립교육지구(Katy Independent School District)를 고소한 여교사이자. 그녀는 작년 9월, 전미 학생 기도 운동 행사인 '씨유앳더폴(See You At the Pole, SYATP)'에서 학교 길대 주변에서 두 명의 교사와 함께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

장에 문책을 받았다. 킹은 바버의 사례가 "학교 이사회와 심지어 교장까지도 헌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나타낸다"며 "그녀의 상황은 미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적대적 태도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했다. 킹 목사는 ICC가 해외에서 발견한 기독교 박해 추세가 미국과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그는 부패하고 번거로운 사법 절차와 혐오 표현법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킹은 독재자와 폭군들이 임의로는 종교적 자유를 약속하지만, 종교적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그런 일이 익숙하다면, 그 이유가 있다"며 "큰 그림과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은 서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독교를 혐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안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킹 목사는 박해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사법 제도가 신앙 표현을 억제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도의 사례를 인용하며, 헌법에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박해를 받으며,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번거로운 사법 절차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말라고 배우고, 그 과정 자체가 처벌받기 때문에 침묵한다"며 심지어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도 LGBTQ 문제와 성별 대명사 사용으로 인해, 인사실로 소환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7,600개 교회 떠난 연합감리교회 재정 직격탄



2019년 2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총회 특별 세션에서 LGBT 지지자들이 참여한 구역에서 시위하고 있다. ©UMC 제공

동성애 이슈로 약 7,600개 교회가 탈퇴한 연합감리교회(UMC)가 재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25일(현지 시간) 연합감리교뉴스(UM News)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진행 중인 UMC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제출된 2025~2028년 교단 예산안은 3억 5,310만 달러(한화 약 4,855억 원)였다. 이는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에서 42% 감소한 금액이다. 총회 예산은 연회에 배분되며, 연회는 다시 개체교회에 선교분담금(apportionment)으로 배당한다고 한다. 또 미국 연회의 선교분담금은 7개 기금으로 분배하는데, 이는 세계봉사기금, 아프리카대학기금, 흑인대학기금, 감독실기금,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 교역장양성기금, 총회행정기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특히 이번 예산안에 미국 내 감독수를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감독실기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미국 46명 등 총 66명의 감독을 지원하려던 것이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감독이 32명으로 주는 등 총 54명의 감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올해 감독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됐다. 감독 수와 예산 자체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륙 감소한 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감리교뉴스는 “교단의 미국 교회 4분의 1이 떠난 후 처음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UMC의 재정 상태에 대해 냉정한 보고를 받았다”며 “대의원들 앞에 놓인 교단 전체 예산안은 40년 만에 최저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단 역사상 가장 큰 예산 삭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차기 총감독회 회장인 트레이시 말론 감독은 “이번 총회는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교인 감소와 교단의 현 재정 상태가 앞으로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말론 감독은 UMC가 더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단 차원의 사역을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워싱턴 DC서 ‘순교자 위한 행진’ ‘어떤 대가에도 예수 따르자’

종교자유 운동가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때문에 박해나 죽음에 직면한 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따르려는 의지를 키우자고 격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순교자들을 위한 행진’(March for the Martyrs) 네 번째 행사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수십 여명이 내셔널몰에 모인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곤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종교자유 운동가들의 예배 음악과 연설이 포함된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거리를 행진하여 성경 박물관을 향해 행진했다.

‘순교자들을 위하여’(For the Martyrs) 창립자인 지아 차콘(Gia Chacón)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복음주의자나 침례교인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사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박해는 인권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인권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놓고 미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순교자들을 위한 행진의 영적 요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권을 옹호할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했다.

차콘은 ‘순교자를 위한 행진’이 “종교 자유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보호를 옹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중동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매일 고통 받고 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차콘은 “2020년 첫 순교자 행진이 열린 이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1억 명 늘

었다”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 5백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연설 중 차콘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나눈 대화를 회상했다.

그녀는 “여기 미국에는 그러한 증인이 필요하다”라며 “목숨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연사들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더 강한 기독교 증언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차콘의 요청에 공감했다. 필로스 프로젝트 교육 책임자인 시몬 리즈칼라(Simone Rizkallah)는 이슬람 국가(IS) 테러단체의 공격 하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및 기타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방 가톨릭 종교 지도자의 답변을 인용했다. 당시 가톨릭 지도자는 “행복하라”고 대답했다.

리즈칼라는 “그가 ‘행복하라’고 말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구현하고, 기독교인의 기쁨을 너무나 많이 구현하고 반영하고 증언하여 동방에서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종류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언 전반에 걸쳐 암시했다.

리즈칼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외로움으로 인한 가난 때문”이라며 마더 테레사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마더 테레사가 발견한 외로움은 미국이 하나님을 잊고, 예수를 잊고, 뿌리를 잊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인 학살 속에서 이집트로 탈출한 아르메니아인의 손녀였던 리즈칼라는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나라가 제공하는 경제적 번영과 종교 자유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미국인이 되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상실했다”고 한탄했다.

리즈칼라는 재학했던 가톨릭 고등학교의 동급생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광-금(06:00AM)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 06:00AM - 3부 11:00A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전 12:30 사랑부 오전 11:00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주일예배 3부 오전 12:15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2: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 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 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오전 오전 10:00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벨리제물 OC제품 주일 예배 오전 8:00 화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츠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밥,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같은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쁘게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부고] 대신교단 남가주노회 소속 김순동(엘리아) 선교사 별세

대한예수교장로회 남가주 노회 소속 김순동(엘리아 김) 선교사가 지난 4월 24일 별세했다. 장례예배는 5월 3일(금) 오후 2시 LA 한국장외사(와싱턴과 하바드)에서 류당열 목사 집례로 열린다.
문의: 213-595-1947
주소: 2045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미드웨스턴 존 바클레이 교수 초청 강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4월 25일에 개최했다. 특별히,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는 신약학 박사과정 개설 기념으로 세계적인 석학이자 더립대학교 라이트 풋 신약학 석좌교수인 존 바클레이(John M.G. Barclay) 교수를 초청해 진행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 현장에 대해 왜 바울이 분노하는지, 이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밝혔다.

바클레이 교수는 조나단 페리와 모리스 블로흐와 같은 인류학자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거래 질서(시장 교환, 사회적 교환, 신성한 교환)에 대한 모델을 본문 해석의 틀로 사용했다.

이 경제적 거래 모델에서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예: 개인적 시장 교환이 긍정적인 사회적 목표로 기여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지지만, 상위 단계에서 하위단계로 전환되는 경우(예: 농부가 신을 위해 작물을 드리는 관습을 무시하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세계적 석학 존 바클레이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미드웨스턴 유튜브 스크린샷

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진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공동식사(주의 만찬)는 온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성한 교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지체를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위 단계의 거래 질서로 격화된 것이었고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바클레이 교수의 해석이다.

90분의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본 컨퍼런스는 바클레이 교수의 제자인 김형태 교수(

주님의보배 교회 담임/미드웨스턴 신약학 교수)가 통역으로 섬겼다. 전 세계에서 19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날 강연은 많은 참여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으며, 미드웨스턴 한국부 신약학 박사과정을 기대하게 했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대학원으로 AT&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 기관인 HLC에 모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7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다. 미드웨스턴 대학 제공

시니어 골프대회, 파란 하늘로 쏘아 올린다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골프대회가 4월 25일(목) 위티어 소재 캘리포니아컨트리클럽(CCC)에서 열렸다. 골프대회 당일에는 13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활기가 찼다. 이날 신청한 시니어들은 100세를 기약하는 회춘 샷을 파란 하늘로 쏘아 올렸다.

이날 골프대회 참여한 시니어들은 좋은 골프 코스와, 센터메디컬 그룹 스태프들의 친절한 안내와에 만족해 했다.

골프대회가 끝나고 열린 뷔페에서는 스테이크가 대접되었고,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상식과 라플 시간을 가졌다. 아쉽게도 행운의 \$10,000이 걸린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여 메달리스트, 장타상, 니어상등 다양한 부문에서



센터메디컬그룹오픈 시니어 골프 대회. ©센터메디컬

시상을 진행하였고, 푸짐한 상품을 나누어주는 라플행사가 진행되어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이날 센터메디컬그룹이 아시아나 LA-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1,200 상당의 피부 미용 기프트 카드, 다양한 골프 상품권과 용품들, 고급 녹용과 홍삼, \$2,500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품을 기부했다.

북한 현실 다룬 영화들 연이어 개봉



(왼쪽부터) <비욘드 유토피아>, <탈주>, <분노의 강> 포스터.

5월 개봉 예정인 생존 휴먼 드라마 <분노의 강>을 포함해,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이 같은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지난 4월 11일 재개봉한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실태와 자유를 택

한 이들의 탈출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낙원이라 믿고 자란 땅을 벗어나려는 이들의 위험한 여정은 안타까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제7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다큐멘터리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였다.

올 여름 개봉하는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

교 '현상'(구교환)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 '꿈을 꾸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강렬한 액션과 인물들의 진한 드라마를 통해 풀어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월 개봉하는 <분노의 강>은 굵직한 가족을 위해 목숨 건 가장 '기철'과 꽃제비 소년 '철수'의 이야기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사설

미 연합감리교회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

동성에 이슈로 약 7,600개 교회가 탈퇴한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최악의 재정 상황에 직면했다. UMC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제출된 2025-2028년 교단 예산안은 3억 5,310만 달러(한화 약 4,855억 원)로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에서 42%나 감소한 금액이다. 교단 역사상 가장 큰 예산 삭감이 가져올 교단 산하 교회 사역과 선교 현장의 부정적 여파가 벌써 우려될 정도다.

연합감리교회의 재정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동성에 문제로 교단 내 미국 교회의 4분의 1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교단의 예산안이 40년 전으로 후퇴한 현실을 마주한 교단과 산하 교회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연합감리교뉴스(UM News)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총회 예산은 각 연회에 배분되고 연회는 다시 개교회에 선교분담금으로 배당된다. 미국 연회의 선교분담금은 세계봉사기금, 아프리카대학기금, 흑인대학기금, 감독실기금,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 교역장양성기금, 총회행정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나뉜다. 결국, 교단 예산의 대폭 감소로 이런 기금 지원이 줄어들면 각종 정책 수행과 선교활동 전반기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UMC 총회가 꺼내 든 카드가 감독 수 축소다.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서는 미국 내 46명 등 총 66명의 감독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선 미국 내 32명을 포함해 총 54명의 감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줄었다. 감독실 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올해 실시하려던 감독선거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2016년 이후 8년 만에 열린 UMC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 대의원들을 기다린 건 40년 만에 최저 예산이라는 냉정한 현실이다. 이는 예산의 감축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동성에 이슈로 7,600여 교회가 교단을 떠난 현실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기 총감독회장인 트레이시 말론 감독은 "총회가 교회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교인 감소와 교단의 현재 재정 상태가 앞으로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란 UMC가 더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단 차원의 사역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가 교단을 더이상 희망적인 울타리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총회와 소속교회 간의 유기적 신뢰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지난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컨벤션센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46:10) 주제로 개최된 UMC 총회는 5월 3일까지 11일간 이어지게 된다. 통상 4년

마다 열리는 UMC 정기총회가 8년 만에 열리게 된 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이다.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총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지 못하게 되면서 그 후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올해 개최됐다. 이번 총회의 공식 명칭이 '2020 총회(General Conference)'인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총회가 지연되는 동안 UMC는 커다란 내홍에 휩싸였다. 교단을 주도하는 진영이 친 동성애적 행보를 거듭하면서 지난 4년여간 7,600여 개 교회가 교단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이 UMC가 최악의 재정 성적표를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동성에 이슈는 UMC에 속한 한인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미국 교회 대의원 482명 중 한인교회 대의원은 8명이다. 그런데 그중 2명이 교단을 탈퇴해 대의원 수가 6명으로 줄었다. UMC에 속한 한인교회가 동성애 이슈에 동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UMC 소속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총회 직전에 발표한 '공동목회서신'에서도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이들은 "이번 총회를 바라보면서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진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갖는 질문이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연합감리교

단에 남아 현재의 전통적 신앙을 지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인 목회자들이 언급한 '전통적 신앙'이란 동성애 등 성(性)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한다. 성 문제에 있어 교단의 입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로 수년간 갈등하면서 이미 7,600여 교회가 교단을 떠났지만, 교단이 어느 방향에 서느냐에 따라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8일 열린 UMC 총회는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각 소위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된 '우선 처리 안건'에 올라온 다른 9개의 법안과 함께 92%의 찬성이란 압도적인 투표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UMC가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이번 주 전체회의에 "동성에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한 52년 된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까지 통과될 경우 산하 교회의 동요와 갈등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에 이슈로 7,600여 교회가 UMC를 떠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교회가 보수적 성경관을 유지한 채 교단에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는 한인교회 수도 적지 않다. 이 교회들은 이번 UMC 총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그 변곡점이 이번 UMC 총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진유철 칼럼

마우이 집회를 마치고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는데 그것도 물속에서 8시간 이상 견뎌낸 사람들만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중심부 화재의 현장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추모공간과 주변만을 돌아 보았습니다. 기적같이 불길을 피한 집사님의 가게를 방문했는데, 닫힌 문과 창틈 사이로 들어온 재가 가게를 가득 채웠던 그 때의 흔적들이 아직도 창문과 벽 등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은 운영하시던 세탁소와 공장이 전소하여 8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화재 참사 후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지난달에는 침례까지 받으셨다고 40년 동안 쌓아온 기도를 응답 받으셨다며 오�히려 감사하며 눈물로 간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 해주셔서 이번 집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마다 충만했고, 3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식사 스케줄로 인해서 함께 대화하며 기도해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준 마우이 산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갑자기 생겨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졌습니다. 지옥 불을 만나면 치료도 회복도 없습니다. 죽고자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 지옥 불에 자동으로 떨어질 우리들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마지막 때를 맞는 이 때,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2025~2028년도 교단 예산안 2016년 예산에서 42% 감소 선교 활동 위축, 감독 수 축소 '우리가 UMC에 남아 전통적 신앙을 지키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 large advertisement for a 2024 Christian University Fair in the US. It features logos and information for several institutions: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사역학대학사),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복음대학교),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zusa Pacific University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글로벌침례신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 신학대학원). Each entr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brief descriptions of their programs.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 비타민 D
\$18.90 ▶ **\$15.90**



10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홍삼 10ml x 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민중기 칼럼

되돌아 본 “허드슨 강의 기적”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5분 뉴욕시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하던 에어웨이즈 1549편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거위 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망가진 상황에서 기장 설렌버거는 라과디아 공항으로의 회항, 인근 공항으로의 비상 착륙을 모색하다가, 결국 허드슨강의 물 위에 비상 착륙하였습니다.

녹음된 공항 관제탑과 기장의 대화는 긴박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50명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중대한 상황 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장, 부기장, 관제탑 요

원과의 대화는 승무원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막중한 결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엔진의 출력을 잃은 비행기가 조지 와싱턴 대교를 지나 허드슨강을 따라 활공하다가, 맨하탄의 고층빌딩과 인근의 주택가를 피해 착륙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 평가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155명 승객과 승무원은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설렌버거는 “허드슨 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영웅”으로 불립니다. 아울러 이 성공적인 활공 착륙은 각종 비상조치의 교과서적 사건이 되었으며,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9일에서 25일에 이르기까지 뉴욕에서 집회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24일 뉴욕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의 인도로 “로스 닥 피크닉 공원”(Ross Dock Picnic Area)에 하이킹을 나갔습니다. 15년 전의 비행기가 수상 착륙하기 위하여 지나간 궤적을 바라보며, 허드슨 강변을 걸었습니다. 웅장한 조지 와싱턴 대교와 멀리 맨하탄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봄날 오후 허드슨강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각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들이 각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상황 속에서 리더의 순간적인 결단이 생사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을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지를 목상하게 됩니다. 함께 하이킹하는 동안 교단의 감동을 지냈던 목사님께서도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교회가 축소되는 시대의 책임자로서의 사역이 힘들었던 면을 언급하시면서, 적절한 상황평가와 사역의 집행 및 선한 영향력의 유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회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적 영향력은 마치 새 때의 충돌, 곧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를 겪은 항공기의 추락에 가까울 정도로 급하게 하락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 혁명과 교단의 분열, 팬데믹과 세속화의 적대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는 유사한 일이 있었고, 현재 미국과 고국의 상황도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대 속에

서, 어떠한 긴급한 판단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이 요청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교단 감독님과의 대화를 나눈 후 정리해본 저의 소견은 첫째 교회의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확보와 교회의 시대적 관련성 혹은 “상황적 적실성”(situational relevance)의 유지라는 두 가지 면입니다. 복음의 확산과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유지 없이, 교회는 힘없는 추락을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복음적 교회는 또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의 선포 없이는, 시대의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예의 주시하고 파악하고 결단하여 탑승객을 안착시키는 설렌버거 기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교회에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현재의 교역자들과 함께 교차된 채 보였습니다.



김한요 칼럼

하나님과 서먹한 분들에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신학교 때 같이 수업을 들던 아주 친한 목사 가정입니다.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자녀들 생일까지도 서로 챙겨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졸업 후 각자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바쁘다 보니,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몇 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사역하는 이웃 교회 목사님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신학교 시절 친구보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더 자주 친근하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옛 친구와 지금 연락한다면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할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습니다. 기도가 독백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의 말씀이 열립니다. 느낌만이 만난 친구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옛 죽마고우보다 더 친해집니다. 자주 만나면 할 얘기도 많아집니다. 친구와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듯,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시간 가는 줄 모르

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독백한다고 생각하면 기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와 친하지 않으면 같이 앉아 있는 시간도 힘들고, 서로 말없이 식사하는 시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친하면 훌쩍 한 두 시간 흘러가 버립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기도의 제1원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방법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기도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는 ‘기도-교’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눈만 감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간단하고도, 쉬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낯선 하나님 앞에서 할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서먹하면 기도처럼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와 밤을 새며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밤새워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일주일만 해도, 하나님과 낯가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친구 사귀듯 매일 하나님과 만납시다. 매일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들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교회 단신

▶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Family Funfair 온 가족 놀이마당’을 연다. 온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게임, 점퍼, 음식 등이 제공된다. 일시: 5월 5일(주일) 12:45~3PM

장소: 분당 앞 주차장
문의: Sam Hahn 전도사 (714-299-2530)
※ 당일 분당 앞 주차장은 행사 관계로 이용할 수 없음.

▶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연다. 5/10, 17(금) 오후 7:30, 5/11, 18(토) 오전 10시에 분당에서 진행되며, 이영숙 박사(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가 내적치유, 자녀 기질별 훈계법,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성 지키기 등의 주제로 강의한다.

▶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5/18(토), 5/25(토)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두란노 부부 학교를 연다. 신승훈 목사, 이병일 목사(아버지학교 지도목사), 김영민 장로, 김카니 권사(미주부부학교 팀장)가 강사로 서며, 참가비는 부부당 \$90이다. 문의: 이조나단 가정사역국장(213-268-5389, besfeeldental@gmail.com)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단 30분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SEOUL MEDIC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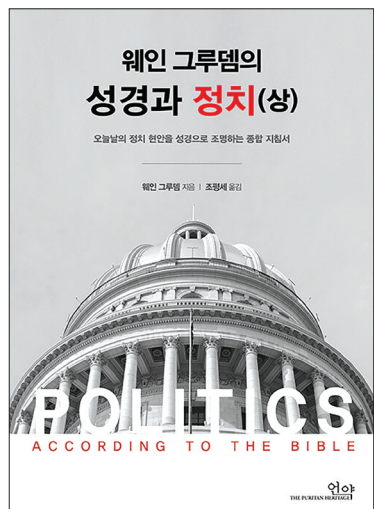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정치 말하기 전, 꼭 읽어봐야 할 책

총선 이후... 정치,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볼까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상)

웨인 그루뎀 | 조평세 역 | 언약 | 736쪽 | 45,000원

정치적 문제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정치, 정부, 세계관, 국가, 생명, 결혼, 가족, 경제, 법, 문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성도들은 이 책을 통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정치적 관점들을 성경으로 재조명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웨인 그루뎀은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학>을 통해 복음주의적 교리와 실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가르쳐온 실력 있는 학자다. 현재 미국 에리조나 피닉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ESV 성경 번역 감독과 ESV 스터디 바이블 총괄 편집을 하기도 했다.

2010년 그루뎀이 이 책 《Politics - According to the Bible》을 냈을 때, 정말 탁월한 저자라고 생각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그루뎀만큼 조직적으로 풀어낼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복음주의 페미니즘>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독교 내부의 여러 견해를 복음주의 원칙-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명쾌한 결론을 독자에게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성경과 정치>는 부제가 말하는 바, '오늘날 정치 현안을 성경으로 조명하는 종합 지침서'가 맞다. 그루뎀은 서문 첫 페이지부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리버럴(liberal)'보다 '보수(conservative)'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부의 역할과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내린 결론이 그렇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 입장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23쪽)." 진보가 아니라 보수를 지지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 책을 진영논리의 희생물로 만든다면,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전혀 읽지 않거나 반대하는 마음으로 대충 읽어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밝힌 것처럼 그는 진영논리에 빠져있지 않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진보적 입장이나 보수적 입장, 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치와 법, 그리고 정부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관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24p).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최대 유익을 얻으려면, 저자가 성경을 통

해 1-5장까지 세우는 기본 원칙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걸맞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고, 6-9장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주제별 이슈들과 관련된 정치 현안들을 앞서 구축한 성경적 세계관과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다루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정치를 잘못 다루어 왔다. 1장에서 그루뎀이 평가한 것처럼, ①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 ②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 ③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④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⑤전도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 등,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으로 많은 실패와 문제를 만들었다. 성경적 관점은 정부에 중대한 기독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2장).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가 정치 참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뎀이 비판한 다섯 가지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루뎀은 올바른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자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을 설명했다: "목회자들은 각 선거에서 중요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각 사안에 해당하는 성경의 도덕적 가르침과 시민 정부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결정하는 데 지혜를 구하고, 장로 및 교회 제직회의 조언을 참고하여 성도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기독교 개개인에게는 최소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현명하게 투표할 의무가 있다(167쪽)."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은 도덕적 중립성을 가진 책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이고, 분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세상은 그 기준을 모르거나 무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그 기준을 세



국회의사당.

상에 가르쳐주고 또 강력하게 제안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그 성경의 가르침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 상반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일이 술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정치 현안에 관해 성경을 중립을 지키고 있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책임이 있는 교회는 세상에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루뎀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원칙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여러 방식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것 등으로 권위를 구분해, 독자가 동의할 수 있고(동의해야만 하고)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 책을 교회나 교회의 부서, 기독교 단체 등에서 함께 읽고 토론해 보기를 추천한다. 선동과 혼란을 일으키는 기독교 모임이나 강연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한 성경적 토론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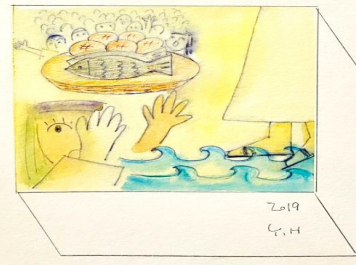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편 119:24

Your statutes are
my delight;
they are my counselors.
PSALM 119:24



龍光山 모임은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삼체> (2)

넷플릭스 <삼체>... 영화로 역사와 세계관 배우면



외계인의 침공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학자들의 활약을 선보이는 TV 시리즈, <삼체>.

종교 해체하는 외계인 중심 세계관 대중문화, SF에 영향력 과도 부여 검증 안 된 믿음, 진리로 탈바꿈해 과도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

◆자연과학과 종교적 보상: 종교의 보상에 대한 '설명' 들

자연과학은 세계의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가? 자연과학이 보여주는 세계의 진리는 여러 종교들이 해명하는 바와 얼마만큼 다른가?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에 더 큰 신빙성이 있는가? 소설과 TV 시리즈 <삼체>는 자연과학의 진리 해명 가능성과 종교적 세계관 사이 긴장과 갈등에 관한 이 오래된 물음을 재차 상기시킨다.

<삼체> 서사 안에서 이 물음은 안타고니스트인 알파 센터우리 외계인들과 이 외계인을 추종하는 사이버 종교집단 교주 예원제를 통해 구체화된다. 예원제는 문화대혁명이 그녀의 가정을 파괴했던 잔혹한 기억, 이후로도 끊임없이 중국 공산당이 그녀에게 자행한 폭력과 인권유린 경험 때문에 인류와 인류문명 자체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치와 사회 분위기의 처참한 비과학성을 확인하고 극단적 냉소의 감정을 품게 된 예원제는 인류보다 과학적으로 몇십 단계는 앞서 있는 알파 센터우리 외계인이야말로 지구의 비루한 문명을 완벽하게 전복하고 다스릴 일종의 '구원자'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 외계인들은 인류가 숭배하는 전형적 형태의 신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세계의 가혹한 전체환경 때문에 반복된 문명 파괴를 겪어 왔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안정적으로 문명의 개척과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우주를 떠돈다. 이처럼 알파 센터우리 외계인들은 전지전

능한 신과 거리가 먼 이들이지만, 예원제 입장에서는 인류 문명의 비인간성과 기술적 미개함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신으로 섬겨도 될만큼 위대한 존재로 비취진다.

<삼체>의 사이버 종교단체에 관한 설정은 여러 종교사회학자들이 내놓는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 부합한다. 일례로 미국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와 윌리엄 심스 베인브릿지는 비용, 보상, 그리고 합리적 선택 개념을 중심으로 원시 인류에서 종교가 발생한 논리를 따진다. 두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큰 보상을 선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려 힘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종교는 자연적 조건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월적 보상(대표적으로 죽음의 극복)을 얻기 위해 비용(믿음과 헌신)을 투입하는 행위이다. 이때 종교를 주로 떠받치는 것은 초월적 보상에 대한 각 종교의 '설명'이다.

이 보상을 수여하는 초월자(신)에 대해, 이 초월자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초월적 보상의 내용에 대해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종교만이 각 집단에 받아들여진다. <삼체>는 여러 원시종교들이 그랬듯 나름 초월자와 초월적 보상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물론 이 설명은 원작 소설 <삼체>의 저자 류츠신의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한 까닭에 유물론적이고 과학주의적이다. 작중 예원제는 그녀가 중용하는 인류에 대한 심판이라는 초월적 보상을 얻기 위해 인생 전체를 바쳐 알파 센터우리 외계인들의 침략을 예비한다. 예원제가 바라 하지않는 초월적 보상은 모두 외계인들이 지닌 과학문명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종교적 진리: 초월자에 대한

자연과학적 설명, 외계인

류츠신은 작중 예원제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이 실은 자연과학으로 충분히 파헤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리고 이는 근래 제작되는 여러 SF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는 종교의 신비 속에 담긴 허실이 자연과학 앞에서 결국 날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과학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런 신념을 받드는 가장 가까운 예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기독교가 설명하는 초월적 창조주가 실은 인류보다 월등한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한 외계인들이라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 외계인들은 인류보다 수십 단계는 더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로 자신들과 닮은 풀 유전자를 지닌 생물 종(인간)을 창조하고 이 종의 번성을 관리했다. 외계인들은 원시 인류에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 그들의 기술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아직 자연과학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원시 인류의 눈으로 보기에 이 외계인들이 사용한 기술의 힘이 그야말로 신비롭고 초월적인 권능으로 비취졌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 외계인들의 과학기술 발전을 어느 정도 따라잡은 인류는 이 외계인들이 무한한 권능을 지닌 초월자가 아니라 그저 인류보다 앞선 문명을 건설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것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연과학적 설명이다. <프로메테우스> 스콧 감독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한다면, <삼체>의 류츠신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런 설명의 중심에는 모두 인류보다 월등하게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한 외계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우월한 외계문명의 존재를 상정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인류의 여러 종교들이 제시하는 초월적 보상이라는 것이 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신비롭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류가 진정으로 바라는 보상들, 즉 생명의 연장이나 사회적 정의나 삶의 안정 및 만

족 등은 결국 인류가 자연과학 지식을 활용해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힘은 모든 종교적 설명의 신빙성을 해체하면서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희망의 방편으로 옹립된다.

<삼체>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들은 이런 생각을 잘 연출된 서사와 그럴듯한 과학적 설정들, 그리고 매혹적인 CG 장면들을 통해 믿을 만한 것으로 포장한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고도로 발전된 외계문명과 그런 문명을 개척한 외계인의 존재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외계문명을 찾으려는 SETI나 동류의 과학 프로젝트들은 천체물리학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외계인의 존재를 분명하게 입증한 적이 없다. 외계인 존재를 근거로 삼는 모든 과학적 설명도 실은 종교들의 설명 만큼이나 인간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류츠신이나 스콧 감독은 SF 서사 즉 공상에 기반을 둔 픽션을 다루는 이들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세계의 진리에 대한 설명



<삼체>에서 예원제가 바라 하지않는 초월적 보상은 모두 외계인들이 지닌 과학문명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은 공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 이미지, 그리고 시대정신을 적절히 활용하는 대중문화의 힘은 SF 서사에 종교적 믿음 수준의 사상적 영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검증된 바 없는 믿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혹은 진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설명인 것처럼 탈바꿈할 수 있다. 영화로 역사를 배우면, 결국에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과도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세계와 우주를 배우더라도 과도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세계관을 갖게 될 수 있다.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또 쉽게 동ну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UMC “성적지향 등 관계없이 모든 사람 권리·자유 지지”

연합감리교회(UMC)가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8일 연합감리교뉴스(UMNews)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총회를 갖고 있는 UMC는 27일 이 선언문이 포함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s)’ 제1부를 통과시켰다.

총회는 각 소위에서 압도적

인 다수로 통과된 ‘우선 처리 안건’(consent calendar)에 올라온 다른 9개의 법안과 함께 ‘교회와 정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룬 이 개정안을 671대 57, 즉 92%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투표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UMC와 그 전신 교단들은 1908년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완전한 정의”를 요구한 사회신조를 통과시킨 후, 언제나 세상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

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UMC가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작업을 주도한 사회생활원칙 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사회생활원칙 작성팀에서 활동한 랜들 밀러는 “오랫동안 우리는 UMC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모든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해 왔다”며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성 정체성 문제를 명확히 하고,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받고, 법적으로, 또 실제 삶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이번 선언은 남녀뿐 아니라 간성, 트

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권리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전체 개정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창조 세계, 인간의 성, 결혼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포함한 더 많은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이 이번 주 총회 대의원들의 투표를 위해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2천년이 지나도록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지난 21일 김우준 목사는 <선교, 그 문턱에서 망설인다면>(마가복음 16장 15절)라는 설교에서, 선교를 망설이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그는 “우리가 선교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피곤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또는 임신생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다. 또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인생의 고비이기 때문에, 건강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헌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속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오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헌신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

도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짊어지게 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함께 제공해 주신다. 능력을 이미 받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선교지에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머물면 우리의 삶은 평생 평범하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왕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고아원에 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는 대략 30억 명이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47억 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명당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30명이 있기 때문에 6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60억은 47억을 훨씬 더 뛰어넘는데 도대체 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했던 적이 있다. 선교팀 중에 80대 권사님이 계셨다. 그분에게 맡겨드릴 사역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고 보니 그때부터 이분이 가장 유능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분이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자녀를 키우고 손자를 바준 것 밖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최고의 자격 조건, 최고의 능력이었다. 자녀를

키워 주신 사랑과 정성으로 고아들을 대했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이 흘러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교의 문에서 망설이게 만드는 세번째 요인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문에서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고민은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극소수이고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2천년이 지나도 세계 복음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물러서 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길 기도한다.” 주디 한 기자

Happy Mother's day

Hills
BEAUTY CLUB

- Tue ~ Sun: 9:00 am ~ 7:00 pm
- Monday : Closed

323-465-7400
21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2024. 1.24

건강하게 가뿐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신는 순간 느껴지는 **기적의 신발!!**

5월 가정의 달 구매고객 감사 경품이벤트

- 기간내 JGP Shoes를 구매하신 고객에게 추첨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행사개요 : JGP 신발 구매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함
 행사기간 : 2024년 4월 29일~ 5월 31일
 대상고객 : 기간 내 JGP신발을 올림픽갤러리아 매장에서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선물을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추첨일자 : 2024년 6월 4일(공개추첨)

- 유의사항
 - 상품권은 오직 올림픽갤러리아 점JGP Shoes만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 JGP 건강증진 신발 올림픽갤러리아 매장에서 구매한 것만 해당됩니다.

- 이벤트경품
 - 1명 JGP트래킹화
 - 2명 JGP일상화 (골프화, 부츠, 트래킹화 제외)
 - 4명 JGP실내화 (남,녀 슬리퍼)
 - 25명 가족로션(천연가죽 관리 로션(명품가방도 사용가능))



Google 검색
www.jgpamerica.com
YouTube 기적신발TV

JGP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신발과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맨발보다 더 좋은 신발(新발=새로운 발)을 만듭니다.

체험사례

- “원발을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걸고 있습니다.”
- “스트로크로 2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를 잡고 왔는데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버리고 갑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엄청 힘든데 이젠 괜찮아요.”
-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신발신고 교정해 발이 편해졌어요.”
-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젠 안 피곤해요.”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및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JGP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